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❶ 부처님 깨달음의 가치



▶**박희승 교수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20년 동안 일하였다. 지금은 불교인재원과 고양 흥국사에서 참선을 안내하고 있다. 유튜브 "영원한 행복 생활참선"을 운영한다.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인생 나침반 된 "너도 깨달으면 부처!"

우리 인류의 위대한 큰 영웅, 부처님

2600여 년 전, 인도의 히말라야산맥 아래 작은 부족국가의 왕자 싯다르타는 사람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음에 큰 의문을 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찾아 출가의 결단을 내렸다. 그는 6년 동안이나 모진 고행을 했으나 여전히 진리를 깨치지 못했다. 싯다르타는 고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보리수 아래에서 고요히 명상에 들어 마침내 큰 깨달음을 성취하고는 영원한 행복을 이루었다.

싯다르타는 이 깨달음 뒤에 '나는 불사(不死)의 문을 열었다' 고 선언하였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출발이다. 싯다르타는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여 깨어난 자, 붓다라 하였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란 인도 말로는 '붓다' 이고 우리말로는 깨달은 자란 말이다.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길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처님을 믿고 불교를 공부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면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죽음마저 초월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부처님 초전법륜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죽음에 대하여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탈의 길을 깨치고 알려준 분은 부처님이 최초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인간들의 위대한 큰 영웅이시다. 인류 역사에서 불교와 예수교(카톨릭 · 개신교), 이슬람, 힌두교 등 4대 종교가 있지만, 불교를 제외하고 예수교와 이슬람, 힌두교는 모두 인간이 아니라 인간 밖의 절대 신을 믿고 신에 의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종교이다. 오직 불교만이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원한 행복을 이루는 종교다. 여기에 불교의 특색이 있고, 가치가 있다.

현대사회는 인공지능과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시대다. 설사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는 신이 창조한 인간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었으니 누가 더 위대한가? 21세기 현대사회에서는 지식과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신 중심의 종교는 신뢰를 잃어갈 것이나 인간 중심의 종교는 더 관심과 주목을 받을 것이다.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의 길을 알려준 부처님

부처님의 깨달음과 불교의 출현은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와 종교에 심대한 파문을 낳았다. 당시 인도는 브라만 계급이 브라만교를 통해서 지배하였다. 브라만교는 엄격한 신분제인 카스트제도를 만들어 인간이 전생의 업에 따라 태어나며 끝없이 생사 윤회한다고 가르쳤다. 브라만교는 전생에 선업과 복을 많이 지어야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 크샤트리아(왕족, 무사), 바이샤(농상업), 수드라(노예, 천민) 계급으로 태어난다고 하였다. 당시 브라만이 가르친 윤회설은 전생의 업이 금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숙명론이다. 브라만교는 전생의 업에 따른 운명론의 윤회설로 인도인들을 구속하고 통치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업과 윤회설을 받아들이면서도 깨달음을 통한 해탈의 길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불교의 특색이고 출발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전생의 업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숙명론을 부정하면서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느냐가 아니라 어떤 행을 하느냐에 따라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는 것' 이라 설하였다. 불교는 업과 윤회설을 받아들이면서도 수행과 깨달음을 통한 해탈의 길을 강조한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에 기반한 불교의 해탈설은 인간이 결정된 운명에 따라 속박된 삶에서 바른 행과 깨달음을 통한 대자유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불교는 곧 인간이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인간 완성의 길이다. 당시에나 지금이나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생로병사와 윤회의 괴로움을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의 종교는 불교 밖에는 없다.

나를 일깨운 한 마디 – "너도 깨달으면 부처다!"

나는 고려 후기 공민왕의 왕사를 지낸 나옹(懶翁, 1320~1376) 대사가 탄생한 경북 영덕 가산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나옹대사의 전설을

산중 선원서 선 전통 지속되지만
일반엔 구복신앙 벗어나지 못해
교육 · 수행 지도 인력 미흡 아쉬워

먹고 자랐지만, 집안은 유교 전통이 강했다. 우연히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나옹대사가 창건한 장육사에서 머물며 공부하게 되었다. 그때 방을 같이 쓰던 대학생이 독실한 불자라 아침, 저녁 예불을 함께 했다. 나는 그때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부처님이 쎄냐, 하나님이 쎄냐 하며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신과 같은 존재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절 생활을 하니 그 대학생을 따라 뜻도 모르고 그냥 예불을 했던 것이다.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새벽 예불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불을 마치고 법당에서 좌선하던 대학생 형에게 물었다.

"(손가락으로 불상을 가리키며) 저 분이 누구에요?"

"부처님이지!"

"부처님이 누구냐고요?"

"깨달은 분이지,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너도 저 자리에 앉아서 설법도 하고 절도 받을 수 있지!"

나는 이 한 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는 그때 결심을 했다. "나 같은 사람이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니 ... 나도 불교를 공부해서 부처가 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불교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지만, 그때 나도 부처가 되는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날 대학생에게 들은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한 마디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이 글을 쓰는 여기까지 오게 하였다(이때 나에게 불교를 알려준 그 대학생이 바로 지금 과학 대중화운동으로 유명한 박문호 박사다).

한국불교의 현실, 구복(求福)과 깨달음 문제

하지만, 한국불교의 현실은 간단치 않았다. 종립 동국대에 진학하여 불교 공부를 할수록 불교는 더 복잡하고 어려웠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가르침이 있으니 어느 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알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초기경전과 대승경전, 그리고 선어록의 가르침은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러웠다. 여기에 선과 교의 차이도 그러했고, 참선과 염불, 주력, 절, 기도, 봉사 등 다양한 수행법도 제대로 알려주는 이가 드물었다.

더구나 일반 사찰은 거의 대부분 불공과 천도재 중심의 구복(求福) 신앙에 머물러 깨달음을 갈망하는 젊은 불자들의 지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1980년에 들어서 도심에 불광사, 한마음선원과 같은 사찰이 개원하여 현대적인 포교로 주목 받았지만, 구복 신앙의 벽은 참으로 두터웠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한국불교의 주된 흐름은 구복 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구복 신앙 중심의 한국불교의 현실은 청년학생들의 이탈을 낳아 미래가 그리 밝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형태이지만, 실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하여 생사 윤회의 해탈을 설하였지만, 구복 신앙은 생사 윤회 안에서 부처님에게 복을 빌고 받고자 하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한국불교는 템플스테이와 참선 명상붐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지만, 이를 보다 대중적으로 수용할 한국불교의 교육과 수행 체계, 그리고 지도 인력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남방 상좌부 승가의 위빠사나 수행법이 체계적인 안내와 쉬운 체험을 앞세워 대중 속에 스며들고 있다. 대승과 동아시아 선종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불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물론 한국불교가 간화선을 중심으로 참선 수행 전통을 성성하게 전승하는 큰 장점이 있다. 이것은 세계 불교계에서도 찾기 어려운 한국불교만의 장점이자 특색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선은 사실상 도시 중심의 현대인의 삶과 분리되어 산중 깊은 선원에서 출가자 중심의 수행이라는 한계가 크다. 특히 언어도단과 불립문자의 돈오를 강조하는 전통에서 간화선 대중화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한국불교는 1700년 동안 대승 경전과 선어록 중심의 교학과 수행 전통을 전승하여 왔는데, 현대에 와서 소승이라 비판하던 초기 경전과 남방 상좌부 승가의 위빠사나 수행 전통이 적지 않는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서양에서는 구복을 건너 바로 참선을 받아들여 과학과 결합하여 심리 치유 프로그램화하여 이것이 오히려 한국으로 역수입되고 있다. 산중 선원에서는 간화선 중심의 선 전통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지만, 일반 불자들은 구복 신앙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 시민과 청년학생층은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위한 템플스테이와 참선 명상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지만, 종단 차원의 교육과 수행 시스템과 지도 인력 양성은 아직 미흡하다.

필자는 이러한 한국불교의 현실 인식과 한국선의 입장에서 이번 연재를 통하여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초기경전과 대승경전, 그리고 선어록을 중심으로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지혜를 발굴하여 전해보려고 한다. 이 글을 통하여 자기 마음에서 지혜를 밝혀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이 되기를 바란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 선지식들께서는 우리 중생이 어리석음을 비우고 지혜를 밝혀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불교의 선은 자기 마음에 본래 갖춰진 지혜와 능력을 계발하여 생사의 괴로움을 단박에 건너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라는 가르침이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대한불교조계종 현존 最古사찰 지장도량

삼랑성 傳燈寺

조실 정암 세연
회주 학롱 장윤
주지 여암

정기 법회
초하루 법회 지장재일 – 합동천도재 및 만년위패 봉안식
일요법회, 어린이법회

전등사 유튜브 '전등사TV' 운영
구독과 알림설정으로 어디서든 온라인 법회에 동참이 가능합니다.

불교학당, 불교대학, 합창단 모십니다.



주소: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홈페이지: jeondeungsa.org
이메일: 9370125@daum.net TEL: 032)937-0125 FAX:032)232-5450